

문 의	대변인실	대변인 이 춘 무	042-481-5027
		사무관 이 승 윤	042-481-5272
		2019년 2월 26일(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민 선택,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은?

- 가장 주고 싶은 발명품 1위는 투명망토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3·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열린 ‘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’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,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투명망토가 선정됐다고 밝혔다.
- 이어서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 2위는 방탄조끼, 3위는 스마트폰, 4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5위는 발열내의가 차지했다. 그 뒤를 이어 전기충격기, 유튜브, 산책화, 무인기, 3차원 인쇄기 프린터 등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선정됐다.
- 이번 페이스북 투표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전문가 집단이 미리 선정한 발명품 31가지 중에서 한 사람이 3가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됐다.
- 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는 관세청,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, 서울시교육청 등의 페이스북으로 확산되어 국민 600여명이 참여, 1,300여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.

□ 국민이 선택한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으로는

- 전체 유효응답의 20%를 차지한 투명망토가 1위로 선정됐다. 투표 참여자들은 투명망토 지지이유로 ‘투명망토는 나쁜 일본군을 피해 다닐 때 최적의 도구이죠. 소중한 우리 유관순 열사님은 보호 받아야 해요’, ‘잠자는 동안 발각될 걱정이나 불안 없이 폭 속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’ 등의 댓글을 달았다.
- 2위는 방탄조끼로 유효응답의 12.2%를 차지했다. 방탄조끼를 택한 사람들은 ‘총탄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세요’, ‘더 이상 충격으로 부상 안당하길 바라요’ 등의 글을 남겼다. 3위에 선정이 된 스마트폰은 유효응답의 9.5%를 차지했다. 스마트폰은 ‘유관순 열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정, 헌신과 희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’, ‘애국지사들과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’ 라는 추천이유를 남겼다.
- 뒤를 이어 발열내의(5위), 전기충격기(6위), 유튜브(7위), 산책화(8위)가 상위에 포함됐다. 그 외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무인기, 자율주행자동차, 통번역장치, 안마의자 등이 뽑혔다.

□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3월 4일 특허청 유튜브 방송 「4시! 특허청입니다」를 통해 더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.

- 특허청은 유튜브,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매일 오후 특허청 직원과 외부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소셜토크쇼 「4시! 특허청입니다」를 방송하여 국민소통과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.